



돌아오는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해외체류 마치고 정계 복귀 선언 ... 4·15 총선 변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1년 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야권의 정계개편을 촉진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의 드렸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저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민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생활만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알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달 중순 이전에 귀국 전망

바른미래당 복귀 아닌

제3지대 신당 창당 나설 듯

호남정치세력 합류 쉽지 않아

야권 정계개편에 역할 주목

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따라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구도는 물론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이달 중순 이전에 귀국할 전망이다. 당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전망이다. 또 유승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으로도 가지 않겠지만 총선에서의 연대 등은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연착륙 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리더십과 비전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국민의당 돌풍의 핵심 동력이었던 호남 민심도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대 정당들의 극단적 충돌로 중도의 영역이 넓어진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은 그에게 정치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청년과 중도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가치로 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호남 정치 세력과 제3지대 신당을 같이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정치적 신뢰가 무너져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에서 선별적 합류 등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호남·수도권), 세대(20·30대), 진영(중도) 등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로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 오늘 취임식

검찰 개혁 급물살 탈 듯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

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

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등 시간표를 촉박하게 잡은 것 역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월단체, 2020 뜨거운 맹세 2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월 단체, 5·18기념재단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거 양극화' 광주가 전국서 가장 심각

저가-고가 아파트값 4.9배 서울·경기·부산보다 큰 격차 고분양가·봉선동 폭등 영향

■전국 평균 아파트가격과 5분위배율

구분	〈단위: 만원, 배〉		
	1분위	5분위	5분위배율
전국	1억835	7억3957	6.8
서울	3억7019	17억6158	4.8
부산	1억1997	4억8950	4.1
대구	1억2150	5억2284	4.3
인천	1억3590	4억5978	3.4
광주	1억538	5억1645	4.9
대전	1억310	4억9948	4.8
울산	9162	3억9601	4.3
경기	1억5344	6억186	3.9

〈자료:KB국민은행〉

광주 아파트값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9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는 등 갈수록 심화돼 주거양극화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광주 5분위배율이 4.9배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광주지역 1분위 저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538만원으로, 전월(1억501만원) 대비 37만원 상승했다. 그러나 5분위 고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5억1645만원으로, 전월(5억1436만원)보다 209만원 올랐다. 1분위 가격 상승보다 5분위 아파트가 5.6배 더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 저가아파트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4.9배로 벌어졌다. 광주지역 주거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됐

이는 서울-대전 4.8배, 대구-울산 4.3배, 부산 4.1배, 인천 3.4배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가격 격차도 울산 다음으로 광주가 심했다.

광주 1분위 저가아파트 전세는 평균 7872만원인데 비해 5분위 고가아파트 전세는 3억3357만원으로, 4.2배 차가 났다. 울산은 이보다 높은 4.3배로 전국에서 가장 컸고, 대구-대전 4.1배, 부산 3.7배였다. 수도권 전세는 서울 3.6배, 인천 3.4배, 경기 3.7배 등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부 봉선동을 중심으로 광주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데다, 투기세력에 의한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현상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검찰, '패트총돌' 여야 무더기 기소 ▶4면

신춘문예 - 동화·시 당선작 ▶14-15면

부상에 훈련 멈춘 KIA 김주찬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함께라서 좋은 새해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202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SAMSUNG